

國民的 理解基盤을 擴散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주최 영광지역 초, 중, 고고생 사생대회

우리 원자력문화재단은 올해를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이해기반 조성의 해」로 정하고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음 7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첫째, 원자력의 대중적 지지의 확산을 위한 국민이해사업의 지속적 추진.

둘째, 신규 원자력시설의 입지확보를 위한 제도활동의 전개.

셋째, 차세대에 대한 원자력 교육기회의 확대.

넷째, 올바른 여론 조성을 위한 여론 주도층의

이해증진 활동의 추진.

다섯째, 원전지리지그룹의 조직화를 위한 친원전 단체의 활동 지원.

여섯째, 반원전 단체의 동향 파악과 적극적인 대응.

일곱째, 국제협력사업의 활발한 전개 등이다.

이를 위해 일반대중에 대한 국민이해사업은 보다 내실을 기하게 될 것이다. 월간지인 「생활과 원자력」은 원자력 관련기사를 증면하여 편집과 내용을 일신하며, 읽을거리가 될만한 단행본을 시리즈

화하여 원자력 총서 수준으로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그밖에 홍보용 팸플렛과 리프렛을 계층에 맞춰 다양하게 발간하고 수준 높은 시청각물로 광고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화사업은 그 대상에 따라 방법을 다양화하고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한 밀착홍보를 펴나갈 것이다. 특히 공개토론회, 강연회, TV 및 지상 좌담회, 캠페인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하여 범국민적인 원자력문화의 붐을 조성할 계기홍보에 힘을 기울일 것이며,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시각적 요구를 충족시킬 전시적 문화사업도 활발하게 전개시킬 것이다.

신규 원자력 관련시설의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후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그 지역 정서에 맞는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순회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 교육과 여론주도층에 대한 국내외 원전시설 시찰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대정부 정책건의를 통하여 주민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교육은 우선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국, 중, 고교의 교과과정에 원자력에 대한 내용이 보다 충실하게 다루어지도록 힘쓰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활발히 개최하고 해외연수 기회도 넓혀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차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를 늘려 중, 고교생의 작문모집, 대학생 논문모집, 사생대회 등을 개최하고 지도교사 및 입상자들의 원전견학과 대학신문 편집장을 대상으로 해외원전시설을 시찰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여론주도층에 대한 대책은 그 범위를 정부, 입법기관, 각종 사회단체로 확대하여 계층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원자력에 대한 왜곡 보도를 방지하고 진실이 알려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

획이다. 그 방법으로 「원자력 위클리(가칭)」와 같은 뉴스레터의 발행도 검토중이다.

원자력을 깊이 이해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도 지원해 나가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92년 영광원전지역에 자생적으로 조직되었던 영광원전희처럼 다른 원전지역에도 이렇게 원자력을 이해하는 단체가 생긴다면, 이들이 원전과 지역주민과의 교량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체 역량 강화와 발전소와 지역주민이 공영하는 일에 기여하며 마침내 전국적으로 사업의 범위를 넓혀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각 발전소의 전시관 운영권이 재단으로 이관된다면 이를 원자력을 깊이 이해하는 자생조직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을 돕는 활동 중심으로 삼을 계획이다.

반원전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정보를 수집 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그들의 주장과 논리를 분석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며, 각종 집회를 통하여 반원전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전단, 책자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원자력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제협력은 더한층 강화 될 것이며, 각종 국제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한편, 재단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원자력계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재단은 앞으로 구성되는 원자력홍보자문위원회 및 조정실무협의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로 발족 3년째를 맞게 되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중장기 홍보계획에 착수하는 첫해로써 심기일전, 앞에 열거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적으로는 제도의 정비와 직원의 자질향상에 힘쓰는 한편, 밖으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급변하는 주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결의에 찬 1년이 될 것이다.